

송광사·선암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순천시, 6월 11일 등재 위원회 구성

한국 정신문화의 산실이자 불교문화의 보고인 전남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의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6월 11일 전남 순천시는 “송광사와 선암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세계유산 등재의 선행과제인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 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올 11월까지 이 잠정 목록 신청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잠정목록 등재와 함께 ▷조계산 생태문화 자원에 대한 조사 ▷조계산 불교문화의 사상 및 문화유산적 가치 등에 대한 학술조사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계산과 송광사, 선암사의 보존 관리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지난 2월 선암사를 방문해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사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논의는 지난 2월부터 사찰조경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5월 10일 문화재청 주관으로 개최된 세계유산등재 추진 대상 발굴 세미나도 조계산 사찰군이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

조계산은 해발 884m로 산세가 험준하지 않으며 낙엽활엽수로 덮여 있어 계절마다 자연의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명이 수백년 되는 상수리, 동백, 단풍, 밤,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이 울창한 자연경관 속에 한국 불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송광사...16국사 배출한 승보총찰 선암사...3천여 동산 문화재 보유

송광사, 선암사가 자리하고 있다. 송광사도 신라 해린대사 창건이후 보조국사를 비롯한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총찰의 종찰로 116여 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송광사 국사전 등 35점의 지정문화재와 2만여 점의 동산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 사찰이다.



조계종 제21교구본사이자 승보사찰인 송광사 전경



건축미가 돋보이는 아치형 다리를 간직한 선암사 승선교

또한 선암사는 백제시대 아도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31본산의 하나이며 현재 46여 동의 건물과 3000여 동산 문화재를 보유한 태고종의 총본산이기도 하다. 순천시는 조계산 송광사·선암사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 외에도 낙안읍성 문화유산과 순천만(서남해안 갯벌)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함께 추진 중이다. 순천시의 한 문화재 관계자는 “송광사와 선암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들이 많이 보유돼 있어 충분히 세계 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많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향림사 목조여래좌상 16세기 조성

향림사, 문화재 등록 추진 예정

광주 향림사에서 소장중인 목조여래좌상(오른쪽 사진)이 과학적 분석 결과 1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향림사(주지 혜향)와 총복대 산학협력단은 6월 17일 향림사가 보관중인 목조여래좌상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 “지난 2월부터 연륜연대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1552~1617년 사이에 별채된 목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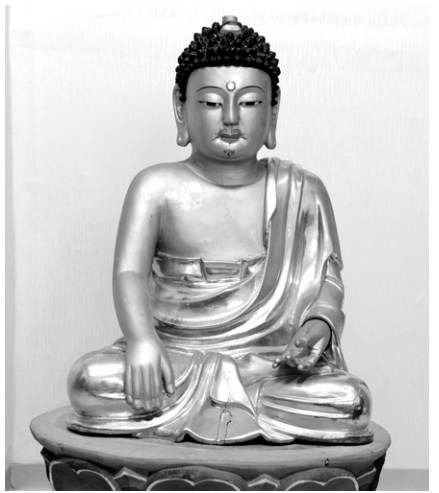
이를 위해 총복대 연구팀은 불상에 사용된 목재의 재질을 분석하기 위해 수종 분석과 연대를 밝히기 위한 연륜연대 및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실시했다.

불상의 각 부위별로 미세편을 채집한 후 실시된 수종분석에서 목재와 복장구는 소나무류(적송류)로, 수인은 버드나무속으로 식별됐다.

또 불상의 밑면에서 4개의 나이테를 채취해 고정밀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실시한 결과 향림사 불상은 1552년~1617년 사이에 별채된 목재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림사 목조여래좌상은 천운 스님이 모셨던 원불로, 지난 1973년 순천 무량사 김법륜행으로부터 인계를 받았으나 당시 복장물이 없는 상태라 복장불사와 계급을 하였다고 한다.

불상은 높이 54cm으로 결좌부좌를 취하고 있으며, 살탄 얼굴에 치켜 뜬 눈, 끈게



뺨은 코, 살포시 다문 입에서 미소를 머금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하고 있다. 좌의법은 오른쪽 어깨를 노출한 편단우견(偏袒右肩)의 약식으로 통일신라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이다. 특히 왼쪽 어깨를 따라 앞뒤로 동글게 말린 대의자락이 길게 늘어지고, 복부사이에 펼쳐진 폭이 넓은 옷주름은 16세기 중후반 불상의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다.

향림사 부주지 범일 스님은 앞으로 “천운 스님이 보관했던 서적과 함께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향후 전시회나 박물관 대여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친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맑고향기롭게 광주지부 창립 15주년 음악회 개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이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맑고향기롭게 광주지부(지부장 고훈)는 7월 7일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대강당에서 범능 스님, 김병조(방송인),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 청심행 등이 출연한 가운데 광주지부 창립 15주년 기념 및 공양나눔의 집 개원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공양나눔의 집은 지난 6월 11일부터 시범운영하는 지역 봉사활동 공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인근에 80여 평의 공간을 마련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1000원의 식대로 점심을 공양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등병의 편지’ 가을유채꽃 앞에서 작사, 작곡한 김현성이 이끄는 밴드인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이 출연하여, 법정스님의 산문집을 읽고 만든 음반 ‘무소유의 노래’를 선보인다. 또한 노래하는 스님 범능 스님과 방송인 김병조씨가 출연하여 법정 스님과의 인연을 이야기로 풀어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머같은 지리산 살려내야”

생명평화결사 6월 17일부터 ‘지리산 살리기 운동’ 펼쳐

최근 댐건설과 케이블카 시범사업 유치로 논란이 된 지리산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에 나섰다.

‘생명평화결사’는 6월 15~17일까지 실상사 대웅방과 지리산 인근에서 ‘지리산의 품에서 모든 생명들이 춤추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지리산 생명평화 순례학교를 열었다.

이날 지리산 순례학교에는 김경일 생명평화결사 위원장, 이병철 전 귀농운동본부 부부장, 이병채 남원문화원장, 우두성 구례문화원장, 최화연 지리산생명연대 사무처장, 김광철 지리산종교연대 목사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생명평화결사는 이번 행사에서 “2001년 국민운동으로 막아냈던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합양군과 정부의 계속된 밀실야합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리산 일대 4곳 지자체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며 “어머니 같은 지리산을 생명평화운동의 성지로 지켜낼



생명평화결사는 6월 16일 지리산 노고단에서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반대하고, 용유담을 명승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생명평화결사는 지리산 종교연대(상임대표 해강)등 지리산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100일 동안 지리산 둘레길과 마을길을 걸으며 지리산에 깃든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평화를 기원하고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합양군과 정부의 계속된 밀실야합을 촉구하는 ‘지리산 살리기 운동’을 펼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리산댐(문정댐)은 경남 함양의 용유담 하류 3.2km 지점에 건설예정인 댐 높이 141m(50층 높

이) 총저수량 1억7천만 톤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홍수조절용으로 발표했으나 지리산 공동연대는 식수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용유담이 모두 수몰되는 것은 물론, 구산선로 최초가람인 남원 실상사 1km앞까지 물이 들이쳐져 된다. 이밖에 벼송사, 서암, 금대암, 영선사 등의 진입도로인 남원-산청구간의 60번 국도가 수몰돼 사할의 고림이 우러리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음식으로 자연평화 지켜내자

전북불교시민연대 사찰음식 강좌 개설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유통과 더불어 건강한 음식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찰음식 강좌가 전주에 최초로 개설돼 인기를 끌고 있다.

전북불교시민연대(공동대표 유지원외)는 구 도청 (사)한국음식문화협회 강의실에서 지난 5월 강좌를 개설하고 7월까지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총 18명의 수강생이 신청해 사찰음식에 담긴 철학적인 등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메뉴 선정은 자연(사찰)음식의 특징을 가진 식재료와 계절 농산물, 현대인의 건강, 식생활에 적합한 메뉴인 △두부소박이 △전통 떡 △표고버섯 우유탕, 들깨탕 △연근김치, 늪은 호박전 △우유잡채, 더덕장떡 △연잎 밥 △천연 조미료 만들기, 여름건강간식 △감자옹심이, 표고버섯 탕수육을 선정해 이론과 함께 조리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좌는 자연음식연구가인 해강 스님

과 백희정씨, 자연평화식당을 운영하는 유지원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유지원 대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취지를 살려 일반인들이 생활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친 생명 평화적 자연음식을 보급하고 알리려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연음식 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사찰음식은 단순히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자연친화적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철학이 담겨 있다”며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 앞으로 참가자로 나뉘어 정기적으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빈그릇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으며 강좌가 종료된 후에도 선방이나 사찰을 찾아 대중공양을 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붕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붓 공 사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은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